



동성애와 실체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초등학교때의 친척형과의 동성관계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성애라는 이슈는 나의 인생에서 빼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동성 간의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계를 지나고 내린 결론은 이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에 빠져 누군가와 결혼을 꿈꾸기도 했고 그냥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여성이 도저히 끌리지 않기에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망가져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묵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같이 탈동성애를 하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바뀔 수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그곳에서 나오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고통 1. “나는 일반인을 좋아합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를 좋아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사랑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성 간에도 건강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우정, 일적인 관계, 사제관계, 선배와 후배, 선임과 후임, 아버지와 자녀, 친척간의 관계 등 우리는 동성 간 많은 관계들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동성애는 이러한 동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많은 내담자들 가운데 호소하는 내용은 자기가 부적절한 일반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문제라고까지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과도하게 잘해

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절제가 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관계가 좁아지고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소위 저의 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기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고 그러니 무언가 어색하고 결국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과 다른 우정의 좋은 경험들을 동성애로 놓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첫 경험인 친척 형과의 관계는 지금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서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 어색한 일입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니 덮어놓고 지내지만 좋은 친척간의 관계는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동성애는 이와 같이 동성 간 건강한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통2. “정상적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 논점에 대해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동성애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꿈이 버려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부를 곧 잘 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동성애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학업능률이 떨어지거나 많은 경우 진학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입시에 실패하였고 강력한 동성애의 유혹은 어린 저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공부는 집중과 정돈된 마음이 필요한데 나의 머리에는 온통 사색만 가득했습니다. 진학에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 노예가 되거나 직장생활에서 빨리 벗어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딴 짓을 하거나 집중이 떨어져 결국 사직 혹은 회사에서 잘리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 오히려 동성애를 고려한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10대에 놓치면 20대에

놓치고 30대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잘 알기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10대에 동성애에 노출된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은 건강한 루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앱을 통해 무분별한 관계에 노출되고 성적경험을 어린나이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은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치명적인 상처와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동성애는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고통3. “부모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자녀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아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 느끼는 것은 어느 부모하나 자녀를 미워서 반대하거나 기성세대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자녀를 학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시대의 변화에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부패와 어두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에 동성애는 직관적으로 내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좋은 것이었다면 부모님들이 “너는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평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부모하나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선뜻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대항합니다.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집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기우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10-20년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오해하며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모두 부모의 탓을 합니다. 부모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자신의 모습을 그저 받아드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통4. “내 몸의 적신호”

동성애자들의 대다수는 성관계를 합니다. 동성 간 성행위시 많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쉽게는 사면발이라는 성병에 걸립니다. 이외에 곤지름, 항문사마귀, 심지어 에이즈에도 노출됩니다. 항문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성 간 성행위에서 여성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변활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동성애자가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지 않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이 쉽게 대상을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곳곳에 있는 동성애 째질방, DVD방을 통해 또는 쉽게 만나는 어플리케이션 통한 번개, 술병개등을 통해 질병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감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같이 느껴지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동성애자들이 소수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도 점차 쉽게 만나지게 됩니다.

더 많은 고통들이 동성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동성애자로 있을 때에 운명처럼 여겨졌으며 견딜 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고통은 벗어날 수 있으면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행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더욱 행복합니다. 장성한 성인이 가정을 이루며 부모가 되어 가는 가정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박진권 디렉터

탈동성애자이고, 현재 아
이미니스트리 대표이다.